metro

메트로 2013년 3월 29일 금요일

News p/03

B-2 괌반도서 폭격훈련

이젠 "오늘 아침빵 드셨어요"가 아침인사

NEWS p/02

체리피커들도 탐낼만한 새카드 몰려온다

ECONOMY p/08

현대차 럭셔리 스포츠 쿠페 콘셉트카 공개 2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3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에 현대자동차 럭셔리 스포츠 쿠페 콘셉트카인 HND-9 이 관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누나들 눈이 번쩍!

2013서울모터쇼 오늘 개막 '꽃미남 레이싱 보이' 전성시대

'레이싱 보이'가 대세?

29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한 '2013 서울모터쇼'가 차 외에도 독특한 볼거리를 선사해 관람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간 국내 모터쇼는 "차와 여자(도우미) 빼면 볼 게 없다"는 비난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다.

대표적인 볼거리는 이른바 '레이싱 보이'다. 여성 일색이었던 모터쇼 도우미가 180cm가 넘는 훤칠한 체격의 꽃미남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번 모터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꽃미남 집합소는 BMW 미니와 아우디. 미니의 경우 12명 가운데 8명이, 아우디는 22명 중 14명이 남성 도우미다. '금남의 벽'이 제대로 무너진 셈이다.

BMW 미니 도우미 최한석(31)씨는 "여성 관람객이 우릴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하신다. 남성들은 '멋지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서 "남성 모델과 사진을 찍으려고 관객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량의 강력한 성능이 남성 이미지와 어울리면서 남성 모델이 꾸준히 늘고 있다. 관객이 아이를 안고 사진 찍기를 부탁하는 등 남성 모델을 편안히 여기는 것도 장점"이라고 전했다.

그간 모터쇼가 아빠의 독무대였다면 이번 행사에서는 자녀들도 덩달아 즐길 수 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미키마우스, 주먹왕 랄프, 토이스토리 등을 만날 수 있는 디즈니 부스를 빼놓을 수 없다.

디즈니의 주요 애니메이션을 찾아서 관람할 수 있고 미키·미니·도널드 등이 등장하는 스마트폰 게임 '파티 하우스'를 플레이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부스에서는 온 가족이 사진작가로 변신할 수 있다. 현대차가 올림푸스와 손잡고 마련한 미러리스 카메라 체험관에서는 하루 동안 카메라를 빌려 찍어볼 수 있고 전문가로부터 사진 잘 찍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

아울러 현대차를 비롯한 몇몇 부스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선 조종 자동차를 전용 컨트롤러로 움직일 수 있는 무대도 마련됐다.

/박성훈 정윤희기자 zen@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인터넷 아동 음란물 다음달부터 집중단속

● 경찰청이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소유 행위와 웹사이트·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전시 및 유통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일컫는다. 자세한 단속 범위나 법규 등은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NHN·SK커뮤니케이션즈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리기자

상처 안 나는 수갑 28일 서울 중구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수갑 사용 개선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실리콘 처리로 상처가 나지 않도록 개선한 수갑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배려자 입학 좁아져

● 파행 운영으로 논란이 된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입시 전형이 비경제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의 입학 기회를 줄인 단계별 전형으로 변경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사배자 전형 1단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계층 학생, 2단계는 소년·소녀 가장과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을 우선 선발한다. 한부모·다자녀 가정 학생은 3단계에서 충원할 수 있다. /김보리기자

혼자 사는 여성 방범서비스 다음달 접수

● 서울시는 민간 보안업체와 협약을 맺고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홈 방범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달 6만4000원이 비용이 드는 보안서비스를 99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여성 1인 가구 중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월세의 전세환산율은 연 12%로 한다.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 여성가족 홈페이지(woman.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배동호기자

'스타 국어강사' 서한샘씨 방송대 광고 출연

스타 국어강사 서한샘(69)씨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세대별 꿈을 담은 광고에 출연했다.

28일 방송대에 따르면 국문과에 재학 중인 서씨는 학교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광고 출연 섭외를 흔쾌히 수락했다.

이번 광고는 세대별로 1020세대는 '선택', 3040세대는 '열정', 5060세대는 '도전'이라는 콘셉트를 담고 있다.

1020세대 모델인 이민새(경영학과)씨는 KT에 근무하며 학업과 일을 함께 하고 있다. 3040세대 모델인 최진유·허수경(이상 영문과)씨는 각각 치과의사와 기정주부로 불타는 학업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방송대는 개교 41주년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2학기 모집을 시작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진시황릉 발견
1974년 3월 29일 중국 서안 외곽의 시골 마을에서 우물을 파러던 농부가 흙으로 빚어진 무사상을 발견해 신고했다. 발굴된 6000여 개의 흙으로 빚은 병마용은 바로 진시황릉을 지키던 병사였다. 중국 천하를 통일, 진나라를 세운 시황제는 37만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무려 37년의 걸쳐 노력 끝에 이 무덤을 완성했다. 병마용은 하나하나가 각각 다른 얼굴의 자세를 취해 모두 훌륭한 예술품으로 평가되며 황릉은 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쌀밥에 고기' 이젠 옛말

식생활 급격 서구화로 빵 생산 껑충··육류소비 줄고 채소·과일은 늘어

지난해 한국인의 식탁에는 고기와 쌀 소비가 줄고 채소와 빵·우유가 더 많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과 통계청·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빵 시장 규모는 2009년(3조5878억원)부터 연평균 15.5%씩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조697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매출 규모는 삼립식품·샤니·기린·서울식품 등 양산빵 4사가 2009년 6563억원에서 2011년 1조524억원으로,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4사가 같은 기간 1조7615억원에서 2조4446억원으로 증가했다. 우유를 가공한 유제품 소비도 증가세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2011년 유제품 소비량은 국민 1인당 70.7kg으로 전년도(64.2kg)에 비해 10% 증가한 수치다.

유제품 소비량은 쌀 소비량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쌀 소비량이 71.2kg, 우유 70.7kg으로 쌀이 근소하게 앞섰지만 두 식품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2012년 우유 소비가 쌀 소비량(69.8kg)을 넘어섰다는 게 업계 추정이다.

고기 소비 증가폭은 줄었다.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육류 소비 지출은 월평균 4만9166원으로 전년(4만9161원) 대비 0.01% 증가에 그쳐 2004년 광우병 파동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 영향이라는 분석과 함께 비만·성인병 등을 우려한 고소득층의 채식 선호 현상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소득 상위 20%는 지난해 육류 소비액이 월평균 6만4509원으로 전년(6만4784원)보다 0.4% 감소했다. 소득 하위 20%는 같은 기간 3만3897원에서 3만4407원으로 1.5% 늘어 대조를 이뤘다.

한편 지난해 과일 및 과일가공품 소비액과 채소 및 채소가공품 소비액은 전년에 비해 각각 8.7%,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증가한 1인 가구가 빵·우유 등 간편식 매출 증가를 이끌었고 건강을 생각한 고소득층에서 고기 대신 야채·채소 소비량을 진작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국민의 영양균형 및 건강 문제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은행 예금금리 3% 깨졌다 33개월만에 2%대 추락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의 3% 선이 33개월 만에 무너졌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현황'을 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94%로 1월보다 0.06%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2010년 5월(2.89%) 이후 처음으로 2%대로 내려왔다.

대출금리는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 속에 0.09%포인트 내린 연 4.91%를 기록했다.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도 각각 4.61%(-0.23%포인트), 4.06%(-0.11%포인트)로 하락했다.

이로써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의 차이는 1.97%포인트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축소됐다.

잔액 기준 총 수신금리는 0.06%포인트 내린 2.59%, 총 대출금리는 0.04%포인트 하락한 5.24%다.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와 대출금리도 모두 각각 0.04~0.08%포인트, 0.12~0.20%포인트 내렸다. /김현정기자 hjkim@

보양식 먹는 수달 28일 서울 여의도 63씨월드에서 열린 '몸맛이 수중생활 보양특식전'에서 아쿠아리스트가 수달에게 특식을 제공하고 있다. 63씨월드는 중·고·대학생이 현장에서 학생증을 제시하면 63빌딩 모든 체키치를 30%로 할인해주는 새내기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성장률 2.3%로 낮추고 추경편성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춰 잡고 추가경정 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는 등 경제 불황기에 대비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3%로 낮춰 잡았다. 지난해 말 3.0%에서 0.7%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 회복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줄어들었다"며 수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 조기 집행 목표 60%를 상반기 중에 조과 달성하는 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펼 계획이다.

추경 편성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국세가 6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일자리 창출·취약계층·중소기업 지원 등 저성장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1조원가량 증액해 경제 회복 동력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다음달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내수·수출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펼치면 하반기에는 3% 이상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리기자

10여명 출금 '경찰의 강수'

성접대 연루 구체적 정황·혐의 포착한 듯

경찰이 27일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10여 명의 인사들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해 불법성을 밝힐 추가 정황을 확보했는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8일 경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요청을 했지만 구체적인 신상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할 만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따라 건설업자 윤모(52)씨가 공사 수주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윤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D건설이 2011년 공사를 수주한 대학병원의 전 원장, 윤씨가 분양한 빌라를 2002년 헐값으로 분양받은 의혹이 있는 전직 사정 당국 고위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해 왔다.

출국금지는 경찰의 수사 강도가 혐의수사에서 강제수사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로, 혐의 내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인사들이 출금 요청 대상에 포함된 만큼 무리한 수사로 판명되면 상당한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배동호기자

<B-2(스피릿)>

스텔스폭격기도 떴다

'보이지않는' 2대 한반도서 타격훈련 첫 확인
美본토서 공중급유 받으며 1만500㎞ 날아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미군 측의 대북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군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미군의 스텔스 폭격기인 B-2(스피릿) 2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군산 앞바다 직도 사격장에서 타격 훈련을 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B-2는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JASSM 16발, GPS형 관성유도 폭탄 JSOW 16발, 합동정밀직격탄인 JDAM 80발 등을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특히 총 중량 1만8144㎏에 달하는 핵폭탄 16발을 탑재할 수 있는 기종이다.

공중 급유 없이 9600㎞의 비행거리를 자랑한다. 실제로 B-2 2대가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전날 밤 출격, 한 차례 공중 급유만으로 1만500㎞를 날아와 임무를 수행하고 미국으로 복귀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이 강력한 대응 의지와 핵 억제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군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실기동훈련(FTX)인 한미연합 독수리(FE) 연습 때 전략폭격기인 B-52와 6900t급 핵잠수함인 샤이엔(Cheyenne)이 참여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핵폭탄 16발 장착 가능 미군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가 28일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을 저공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에 정통한 다른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를 다음달 2일 성남공항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F-22 랩터의 공개는 지난해 10월 오산기지에서 첫 공개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동오기자 e-ssen@metroseoul.co.kr

금정산에 나무 심어요 식목일을 앞두고 28일 부산 북구 금곡동 소방학교 뒤편 금정산에서 북구 공무원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 /연합뉴스

사하구 지역 첫 IAEC 가입

부산 사하구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교육도시들의 국제기구인 국제교육도시연합(IAEC)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IAEC는 교육환경 개선과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994년 제3회 교육도시국제회의에서 창설됐으며 본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다

현재 37개국 442개 도시가 가입해 있으며 교육도시헌장에 부합하는 시책 개발, 회원 도시들 간의 공동연구 실천사례 공유, 국내외 기구들과의 합동 프로젝트 진행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스위스 제네바, 독일 뮌헨, 프랑스 파리, 캐나다 퀘벡 등 유명한 국제도시들이 활동 중이고 국내에서는 경기도 파주시, 서울 송파구, 광주광역시, 창원시 등 17개 도시가 회원으로 올라가 있다. 부산에서는 사하구가 최초로 회원 도시에 등재됐다

자전거 대여·수리 무료 서비스

부산 해운대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좌수영교 밑에서 자전거 종합 서비스 센터 개소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전거 50대를 비치해 해운대 구민은 물론 관광객도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나 무료로 빌릴 수 있다

또 전문 기술자 4명이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상주하면서 고장 난 자전거를 무료로 고쳐줄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3개월간은 매주 목요일 기술자들이 동별로 순회하면서 고장 난 자전거를 고쳐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종합서비스센터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자동 공기 주입기도 설치해 이용자가 손쉽게 자전거 바퀴에 공기를 주입할 수 있게 된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2 FAX (02)730-1551
총괄편집인 [illegible]
서울 편집인 [illegible]
편집국장 [illegible]
부산지사장 겸 대표 [illegible]
서울광고문의 02)721-9351 3
부산광고문의 051)650-2100
독자센터 02)721-9862
[illegible]

"동부산단지 외투 지정 재검토를"

부산경실련 "테마파크 조성 등 노력 안해… 주거단지 변질 센텀시티 전철 우려"

부산경실련은 28일 부산시가 동부산관광단지 34개 시설 중 아쿠아틀드 랜드마크호텔·테마파크 등 3곳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이날 내놓은 경실련 의견서에 따르면 "테마파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부지 50만㎡를 5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특혜와 함께 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감면받고자 하는 대기업의 욕심에 부산시가 끌려다니는 것"이라며 "해당 기업은 특혜만을 바랄 뿐 동부산관광단지의 성패를 가를 테마파크 조성과 이를 위한 투자자 모집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부산관광단지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개발을 시작했다가 고층 주거단지와 고급 쇼핑 지역으로 변질된 센텀시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동부산관광단지의 핵심인 테마파크의 성공 여부가 확신되지 않는 상태에서 쇼핑센터와 호텔 등이 먼저 들어서고 이후 골프장과 분양이 가능한 한옥마을까지 건설된다면 개발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경실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이날 부산시장과 부산도시공사 사장에게 전달했다

또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CJ와 부산도시공사가 설립한 동부산테마파크㈜의 증자 계획 및 실행 현황 ▲동부산테마파크가 수립한 세부 계획 및 타당성 사업성 분석 결과 ▲동부산테마파크의 현재 투자 유치 실적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전체 추진 상황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 개발 예정 지역에 대한 매매계약과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동부산관광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별 제공 혜택(특례 및 지원 기능 항목 등)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수희기자 ksh@metrobusan.co.kr

"재래식 양수기 신기하네"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9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를 찾은 어린이들이 재래식 양수기 체험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31일까지 계속된다 /뉴시스

옥상 텃밭의 즐거움 배운다

도시농업박람회 개막

'제9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가 28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농업 주제 기획관 ▲각종 전시관 ▲교육·체험관 ▲특별 부대 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메인 주제관인 도시농업 주제 기획관은 도시 재생과 환경 개선 등 도시농업의 가치와 역할 및 도시농업 실천 방안을 홍보하는 장으로 꾸며진다

또 도시민들이 가정에서도 쉽게 채소를 기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자재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도시농업산업관'과 '생활원예관'과 함께 전국 우수 농산물을 전시·판매하는 '우수농산물관'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30일에는 경연장에서 어린이부 경연 행사와 함께 부대 행사로 라이브 요리 공연도 펼쳐진다. 29일과 31일 양일간은 스토리텔링식 화전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부산경남화훼원예농협의 꽃 전시, 농촌 사진 전시 행사, 전국 옥상 베란다 텃밭 디자인 공모전 및 전국 가정원예 콘테스트 작품 전시와 시상식도 함께 개최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도시농업박람회 홈페이지(dosinongup.com)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수강생 모집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내달 3일까지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은 내달 15~17일 총 12시간에 걸쳐 성평등 관점을 심어주기 위한 의식교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모니터링 방법과 사례 숙달, 현장 실습을 통한 시범 모니터링 등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1일 차에는 성평등 관점 의식과 모니터링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시간으로 구성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평등 정책 내용으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해로 진행된다

또 2일 차에는 타 시·도 모니터링 활동 사례와 별령 예산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방향에 대해 학습한다. 이에 타 시·도의 활동 사례와 함께 모니터링 활동 후 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마지막 날에는 이틀 동안 강의를 바탕으로 실제 도시 공간에 나가 도시환경을 점검하는 등 시범 모니터링을 실시해보는 현장 실습 시간을 가진다. 한편 이번에 모니터링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은 내년부터 부산시를 포함한 구·군 정책 모니터링에 참여케 된다. 교육비는 무료

문의 051)330-3435

배 타고 대마도 가기 편해진다

미래고속㈜과 JR규슈고속선㈜은 다음달 1일부터 부산~대마도 항로를 공동 운항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여객선사는 이미 부산~후쿠오카 노선에서 공동 운항을 하고 있다. 공동 운항이 되면 하루 1~2편이었던 부산~대마도 배편이 2~3편으로 늘어나 배를 타고 부산과 대마도를 오가기가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비호와 비틀호는 부산~히타카츠는 1시간10분, 부산~이즈하라는 1시간5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한편 한·일 바닷길을 양국의 대표 여객선사가 공동 운항함으로써 부산권과 규슈지역 간 교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양사는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내버스 위반사항 104건 적발

부산시는 시내버스 안전관리 자도점검을 통해 재생타이어 마모 한계 초과 등 자동차 안전기준과 운송사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례 104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부산시와 교통안전공단, 구·군 합동으로 총 33개 업체 2511대 중 23개 업체 132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체와 차고지를 현장 방문해 자동차 안전기준과 차량 정비 점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 등을 확인했다

시는 점검을 통해 ▲재생타이어의 마모 한계 초과(16건) ▲등화장치 부적합(20건) ▲소화기 관리 부적절(36건) ▲긴급 비상장구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6건) ▲좌석 시트 훼손 장애인 리프트 관리 미흡(26건) 등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어두운 골목길에 조명 달고… 울타리 없는 계단식 집 도입하고…

환경 디자인으로 범죄 예방

오늘 시청서 포럼 열려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부산시가 도시의 환경디자인을 통한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시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9일 오후 3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의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적용 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연다.

이 포럼은 집 주변의 공약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없애는 방법으로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주목을 받으면서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셉테드의 개념뿐 아니라 셉테드를 도시계획, 건축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 다른 시도의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부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셉테드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을 나눌 예정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셉테드는 도시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 예방기법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0년부터 신규 뉴타운에 셉테드 도입을 권고한 데 이어 경기도도 오는 6월까지 셉테드 디자인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인천시도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셉테드가 적용된 사례는 ▲어두운 골목길에 환한 조명을 달거나 지하 주차장 곳곳에 비상벨을 설치한 사례 ▲고층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부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 유리로 설치한 사례 ▲아파트 놀이터를 단지 중앙에 설치한 사례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부산의 마추픽추'로 불리는 감천 문화마을의 '울타리가 없는 계단식 집'이 셉테드 원리가 자연스럽게 도입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부산시 도시경관 담당관실 관계자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셉테드를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공시입찰 발주 시 설계평가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셉테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이 기자 kum@metrobusan.co.kr

수족관에도 봄이 왔어요 28일 부산아쿠아리움 수족관에서 봄을 맞아 새롭게 놓고 있는 나비 같은 '가시나비고기', 바람에 흩날리는 … 같은 '무희나선고리해파리', 권들레를 처럼 자태를 뽐내는 '성공세닐광미꽃'(왼쪽부터). /연합뉴스

BS금융지주 주당 330원 배당

2기 주주총회 개최…성세환 부산은행장 비상임이사 선임

BS금융지주는 28일 동구 범일동 부산은행 본점 7층 강당에서 주주 및 임직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2기 정기주주총회를 가졌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BS금융지주는 2012년도 3611억원의 당기순이익 등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당 330원(액면가 기준 6.6% 배당)의 현금 배당을 의결했다.

임원 선임에 관해서는 부산은행 성세환 은행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지난해 선임됐던 임영록 BS금융지주 부사장은 재선임됐다.

사외이사도 일부 변경돼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박맹언 교수(전 부경대 총장)를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했고, 임기가 만료됐던 김성호, 김우석, 이종수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

이 밖에 개정 상법 등을 반영한 정관 변경안을 비롯해 이날 주주총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승인 의결했다.

한편 BS금융그룹은 지난해 그룹 총자산이 전년 대비 10% 가량 증가한 46조3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3611억원, BIS 비율 15.19%, 연체대출채권 비율 0.69%의 경영 실적을 거뒀다.

부산대 의류학과 작품 패션쇼

대학생들의 패션 아이디어를 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신세계 센텀시티점은 29일 오후 7시 9층 문화홀에서 '2013 부산대 의류학과 졸업작품 패션쇼'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부산대 의류학과 졸업생이자 예비 디자이너 32명의 창의적인 의류 작품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대학 관계자 및 동문, 학부모, 일반 관람객, 업계 관계자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5년 연속 패션쇼를 공동 기획하게 된 신세계 센텀시티점은 이번 행사를 위해 9층 문화홀를 무료로 대관하고 무대 제작비용도 전액 지원했다.

코브라 100만족 판매 기념행사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에서 '코브라 시리즈 100만 족 판매 기념'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

끈 없는 트레킹화인 '코브라' 밀리언셀러 제품 시리즈를 기념한 기념으로 2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등산화를 20%, 봄 신상 아웃도어 의류를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코브라'는 트렉스타가 세계 최초로 보아 시스템을 아웃도어 신발 열 위치에 적용시켜 개발한 신발이다. 보아 시스템은 신발 끈을 묶을 필요 없이 신발에 부착된 다이얼을 돌려주기만 하면 신발 내부에 연결된 와이어레이스가 발에 감겨 간편하게 신을 수 있는 기술이다.

한편 '코브라'는 누적 판매 100만 족에 달하는 트렉스타의 베스트셀러 시리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입 전형 수 2901개

올해 시행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의 전형 유형 수가 290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입시업체 이투스청솔이 28일 밝혔다.

이투스청솔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제공하는 2014학년도 대입전형계획 홈페이지에 실린 215개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수는 1863개, 정시모집 전형 수는 1038개로 모두 2901개였다.

이는 2013학년도 대입에서 전형 유형 수가 3186개에 달한데 비해서는 조금 줄었지만 전체 대학의 전형 계획을 분석한 것은 아니어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대학별로는 인하대가 28개(수시 17개, 정시 11개), 대진대가 26개(수시 15개, 정시 11개), 경주대가 24개(수시 16개, 정시 8개) 등으로 많았다. 전형 유형 수가 20개 이상인 대학은 모두 22개였다고 이투스청솔은 밝혔다. /연합뉴스

귀농·귀촌 4만7000명

베이비부머 은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귀농·귀촌인이 5만 명에 육박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가구는 1만1220가구(1만9657명)로 전년보다 11.4% 증가했다. 인원으로는 12.6% 늘었다.

지난해 귀촌 가구는 1만5788가구(2만7665명)였다. 귀농과 귀촌인을 합치면 4만7322명으로 5만 명에 육박한다.

귀농인은 농업활동을 위해, 귀촌인은 전원생활이나 비농업활동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귀농지역은 경북이 1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15.4%), 경남(12.8%), 전북(11.0%) 등이 많았다.

귀촌지역은 경기(42.1%), 충북(18.3%), 강원(16.6%) 등 수도권이나 수도권 인접지역이 대부분이다. /연합뉴스

출소 당일 또 쇠고랑

서울 송파경찰서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로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10분께 송파구 삼전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 가스 배관과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절단기로 베란다 창문을 뚫고 들어가려 했으나 침입경보장치가 울리는 바람에 현장에서 경비업체 직원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본드를 마시고 가정집에 침입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이날 0시30분께 만기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安 요청 오면 도와야죠"

"정치로 나선 이상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
"영도는 어려운 지역… 야권이 힘 모아야"

문재인(오른쪽) 민주통합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장준하 선생의 분향소를 찾아 장준하 선생의 부인 김희숙 여사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돕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문 의원은 2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고 장준하 선생 겨레장'에 참석해 "안 전 교수가 정치로 나선 이상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안 전 교수가 잘 되는 것이 야권 전체와 민주당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안 전 교수에게 (지난 대선에서)크게 신세를 졌다"며 "안 전 교수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도울 길이 있으면 돕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관련해선 "요청이 있으면 당과 의논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대선에서 안 전 교수의 양보로 야권 단일후보가 된 문 의원이 '안철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야권 연대 향배와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의 출신지인 부산 영도 재선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당세가 막강한 반면 야권은 세력이 약해 어려운 지역"이라며 "야권이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한데 그것도 잘 안 되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영도 재선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부산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돕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도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은 김비오 후보 선대위 위원장직 수락 여부에 대해선 "요청받은 바 없다"고 했다.

/김민서기자 kahn@metroseoul.co.kr

'누드 파문' 심재철, 윤리특위 위원직만 사퇴

국회 본회의 중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물의를 일으켰던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8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을 사퇴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유나 경위가 어찌됐든 잘못된 행동이었기에 유구무언"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지난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 몇모습을 보는 장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당시 그는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줘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고 해명했으나 그가 인터넷 검색창에 '누드'라는 단어를 직접 입력하는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김동기기자

심재철(가운데)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휴우여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양형기준에 3년 더한 징역 23년형 왜?

강남 술집 칼부림 살인범 "사과 않고 되레 책임전가"

심야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서울 강남 술집 '칼부림' 사건의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제갈모(39)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한 피해자가 고귀한 목숨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는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피해자들의 가족과 친구들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사과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기준표상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제갈씨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9년 이상 약 20년이다.

피고인 측은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정신적 문제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신사동 한 지하주점에서 흉기로 모 가수의 전 부인인 강모씨를 살해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 등 남성 3명을 잇달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활짝 핀 봄꽃 28일 울산시 남구 무거동 무거천인 '궁거랑'에 벚꽃과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다. 대학생들이 도심 하천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복 동기의 살인도 가중 요인이 있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살인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수정 양형기준안을 최근 심의·확정한 바 있다. 수정 양형기준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KOSPI

3/22	3/25	3/26	3/27	3/28
1946.71	1977.87	1983.70	1993.44	1993.52 (+0.08)

Nikkei (일본)
12335.96 (−157.83)
Hang Seng (홍콩)
22299.63 (−165.19)
Shanghai (중국)
2236.30 (−64.96)
Dow Jones (미국)
14526.16 (−33.49)

EXCHANGE RATE

달러	1113.50
엔(100)	1182.44
유로	1425.28
위안	179.19

강만수 산은회장 사임 'MB인사' 물갈이 신호탄

강만수(사진) 신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강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지금으로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취임한 강 회장은 금융권에서 대표적인 'MB 인사'로 꼽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강 회장의 사의표명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CEO의 물갈이를 예고한 뒤 나온 사의 표명이어서 어윤대 KB금융지주,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친MB로 불리는 금융가 수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기가 3개월 정도 남은 KB국민지주 어 회장의 경우 4월 초에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이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이 회장은 잔여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금융권 CEO 교체설' 기정 사실화에 이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지주사 회장이 지휘사 경영 독립성을 침해하고 재량적 권한을 행사한다"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변수다.

일각에서는 최근 청와대가 금융당국을 통해 MB정권에서 임명된 금융지주사 회장들에게 "4월까지 거취를 정하라"고 통보했다는 말도 돌고 있어, 사퇴를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김학선기자

<혜택만 챙기는 얌체고객>

체리피커가 탐낼 새카드 '짠~'

신한 '큐브'·하나SK '메가캐쉬백 체크' 출시

카드업계가 장기 불황의 돌파구를 '공성'에서 찾는 업체와 '수성'하는 곳으로 나뉘고 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와 후발 주자인 NH농협카드, 하나SK카드는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앞으로 할 예정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는 반면 전업계 1, 2위인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기존 상품의 업그레이드만으로 대응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하나SK카드는 고객 혜택을 늘린 신상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농협카드는 내달 중순 신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큐브는 통신, 교통 등 9개 분야에서 최대 5개까지 기본 할인(이용 금액의 5%)을 받고, 추가 요금을 내면 9개의 또 다른 분야에서 최대 2개까지 추가 할인을 해주는 상품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큐브는 맞춤형 콘셉트를 입체 퍼즐 '큐브'로 구상화해 원하는 서비스를 조합해 만들어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추가 탑재형 서비스 큐브는 고객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카드 상품에 추가로 탑재해 사용하는 콘셉트"라고 덧붙였다.

하나SK카드도 '하나SK 메가캐쉬백 더 드림'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은행 멤버십, 유통·온라인쇼핑 기업들이 직접 참여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재환 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신용카드 시장 구조 개선 등 카드업계가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용카드 수준의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농협카드는 4월 신상품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현재 상품명 설문조사 결과 등을 취합해 최종 점검 단계에 있다"며 "4월 상품 출시는 1년 장시의 틀발로, 올해는 1~2개의 신상품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별책 신상품 출시 계획이 없다. 기존 히트 상품인 숫자시리즈와 M시리즈에 올해도 각각 집중할 계획이다.

이들 전업계 대표 카드사들이 신상품을 통한 1년 장시가 아닌 기존 상품 업그레이드를 내세운 이유는 일단 여전히 잘 팔리기 때문이다. 2003년 5월 출시된 현대카드 M시리즈는 3월 현재 누적 발급 800만장이 넘었고, 2011년 11월 출시된 삼성카드 숫자시리즈는 내달 누적 발급 200만 장이 예상된다.

/김민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신의 물방울'은 어려워~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소믈리에 제12회 소믈리에 대회 1차 예선'에서 참가자들이 와인 맛을 체크하고 있다. /뉴시스

'팬택=박병엽' 깨졌다 이준우 대표 투톱체제

팬택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톱체제'를 승부수로 던졌다.

박병엽 부회장과 이준우 부사장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해 박 부회장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할 투자금 유치에 진력하겠다는 방안이다.

팬택은 28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 부회장은 외부 투자자금 유치와 재무구조 개선, 중장기 경영 구상에 집중하고 이 부사장은 일상적인 회사 업무와 현장 경영을 맡게 된다.

이번 체제 전환은 '팬택=박병엽'이라는 공식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애플의 양강 구도로 재편된데다 2007년 이후 5년 만에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체제 변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팬택은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매출 2조2344억원, 영업손실 776억원, 당기순손실 178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팬택 관계자는 "제품 자체의 경쟁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브랜드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이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신규 자금을 유치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국룡기자 lunlee@

모바일게임·홈쇼핑·영화… '알뜰주' 주목

애널 인터뷰-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

"지금 장세에서는 낙폭이 큰 업종이나 종목을 찾기보다는 국내와 글로벌 시장 모두에서 소비 흐름이 좋은 부문을 찾아내는 편이 낫다. 최근 알뜰족이 몰리는 모바일게임이다. 홈쇼핑, 방송, 영화, 렌터카 등의 서비스업종이 유망할 것으로 본다."

이재만 동양증권 연구원은 지난 20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증시의 투자 전략을 이처럼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글로벌 소비 유망주와 국내 소비 유망주는 다른 흐름을 보인다"며 "아직 우리나라 가계들이 향후 경기 개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갈수록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산업도 계획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업종이 해외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것으로 봤다.

이 연구원은 "특히 오락·문화 업종 중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이나 방송·영화 국내는 물론 중국과 동남아 등지의 해외시장에서 상당한 반응을 얻고 있다"며 "렌터카 업종도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 수요까지 몰리면서 내수 성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IT 업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승철기자 hjcon1@

치솟는 가계대출 연체율

지난달 은행권 1.04% 집계… 6년4개월에 최고치 기록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6년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05%포인트 오른 1.0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10월(1.07%) 이후 6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1%를 기록하며 1%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잔액 중 비중이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96%로 0.02%포인트 올랐다. 다만 지난 2006년 8월 1.03%를 기록한 이후 1%를 밑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중 아파트 분양자들이 중도금·이주비 등을 함께 빌리는 집단대출은 1.99%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0년 12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일반부동산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등의 연체율은 1.21%로 전달 대비 0.13%포인트 올랐다.

권창우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체감 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돼 연체율이 올랐다"며 "은행들이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연말에 대규모 상각·매각을 한 데 따른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유현정기자

우게 달아 판매하는 '킬로 탕수육' 28일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무게로 달아서 판매하는 '킬로 탕수육'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창립 15주년을 맞이해 탕수육을 시세보다 50%가량 저렴한 100g당 79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 제공

금감원 제무제표 감리기업 55% 증가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재무제표를 종전 10년에 한 번 받을까 말까에서 7년에 한 번씩은 직접 감독 관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발표한 '2013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에서 올해 직접 회계 감리 대상 상장사 수를 지난해 129개사에서 71개사(55.0%) 늘어난 200곳으로 확대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3년 뒤부터는 매년 회계 감리 대상을 현재 전체 상장사의 10% 미만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 상장사들은 약 7년에 한 번꼴로 금감원의 직접 감리를 받게 된다.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거나 우회 상장,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 등 분식회계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감리 대상으로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는 무작위로 정한다.

소액공모가 잦거나 자산양수도가 빈번한 상장사들과 대주주에 대한 대출 및 보증 담보 제공 행위가 있는 기업은 집중 감리 대상이다. 또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 피해자들이 감리 결과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16개사를 선정하고 대형 회계법인은 2년마다 5곳씩 관리를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9개사에 대한 감리를 통해 68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영세자영업 종소세 줄어든다

동네 식당과 제과점, 인터넷PC방, 부동산중개업체 등 영세 자영업자와 대리운전자는 올해 5월부터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방송, 영화 제작사와 연예업종의 세금 부담은 커진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계산 기준(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조정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낮출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단순경비율 인상으로 세 부담을 덜게 되는 업종은 인터넷PC방·음식점·제과점·부동산중개업·대리운전·간병인·탁구장·볼링장·택시 등 80개다.

반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영화 제작·배우·작가·가수·예관동 관련 용품점 등 28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낮춰 세 부담을 늘린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서점·슈퍼마켓·인경도소매점·구두 소매점 등 85개 업종은 오르고, 주차장 임대·피부미만관리실·자전거 도매점·골프장비 소매점 등 207개 업종은 내린다. 단순경비율과 달리 기준경비율은 세 부담 증감과 관련이 없다.

/김한용기자 hkim1@

'아차! 내가방' 하는 순간 역무실로

지하철 유실물 찾으려면 하차한 열차번호 알면 도움

전동차에 가방을 두고 내린 20대 여성 고객이 당황한 표정으로 역무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말을 잇지 못하는 고객을 보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유실물 찾기에 나섰다. 10분쯤 지나니 다른 역으로부터 유실물 습득 연락이 왔다.

역무실을 찾는 고객 상담수는 열차에 물건을 놓고 내린 후 뒤늦게 알아차린 경우다. 하지만 이들 중 70~80% 이상이 물건을 찾는다. 곧바로 역무실에 신고하면 거의 대부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물건을 못 찾는 경우가 간혹 있다. 열차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고객에게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

가장 쉽게 유실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물건을 두고 내린 열차번호를 아는 것이다. 열차에서 내리고 출입문이 닫히자마자 허전함에 '아차' 하는 느낌이 든다면 출발하고 있는 열차번호를 확인해두면 좋다. 승강장 안전문 때문에 가려 잘 보이지 않으므로 승강장 위에 매달려 있는 행선안내기를 보면 열차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해당 열차가 출발한 후라면 그다음 열차번호를 기억해도 도움이 된다.

열차번호뿐 아니라 두고 내린 짐의 위치, 하차 위치, 물건의 모양과 색깔은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다. 이런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열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다음 역들에 연락해서 유실물을 찾기가 쉬워진다.

이제 곧 봄나들이가 시작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나들잇길에 짐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부쩍 많아지는 계절이다. 두고 내린 사실을 깨닫는 즉시 빨리 역무실을 찾으면 30분 안에 대부분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이울러 유실물센터 전화번호(1~2호선 6110-1122, 3~4호선 6110-3344)를 알아두면 더 유익하다.

/이종하(서울메트로 ○○역 역무원)

만성질환 노인도 가입 "부탁~해요"

차티스 '명품치매보험' 상품 "50~70세 상담 전화 하세요"

CHARTIS
명품치매보험
080-432-0164

고혈압을 앓는 박기담(70)씨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퇴짜를 맞았다. 박씨는 다른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한 번 가입을 거절당하면 업계 정보 공유를 통해 다른 보험사에서도 가입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낙담했다.

당뇨병이 있는 독거노인 강순례(69)씨는 박고서는 부담에 보험 가입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두 아들이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부양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차티스손해보험은 박씨와 강씨처럼 급증하는 만성질환 노인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가입 문턱을 낮춘 '명품치매보험'을 선보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당뇨나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을 앓는 고령의 만성질환자들도 평소 관리만 잘 했다면 상담 전화를 통해 해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만성질환 위험 정도를 통계화한 수치가 없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역발상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50~70세이며 최대 90세(일부 담보는 80세)까지 연장된다.

특히 해당 상품은 노년층의 가장 큰 고민인 치매에 대비하기에 최적이다. 치매 진단과 동시에 간병비를 일시불로 보장(최초 1회)하며 상해·질병 입원일당과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차티스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나이에 맞는 보장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080-432-0164

/김한용기자 hkim1@

metro France

4 metro ÉVÉNEMENT

Santé

L'e-pharmacie doit encore convaincre

metro Mexico

El arte de volar hecho tradición en Veracruz

15m 높이 막대기에 '대롱대롱'

멕시코 베라크루스에서 15m 높이 막대기에 매달려 하늘을 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타힌 막대기'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멕시코 고대 도시인 '타힌'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 베라크루스 파판틀라 마을에서 열린다. 20년 이상 '타힌 날기'를 연구한 한 남성은 "타힌 날기는 토토낙 부족의 10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전통 제식"이라며 "2009년에 타힌 막대기 축제에 편입됐고, 이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metro Russia

Художника

30분간 땅속에 산채 묻는 예술

최근 모스크바에서 미드 그룹 '우트러쉬'가 예술가를 산 채로 '땅속에 묻는' 이색 퍼포먼스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우트러쉬' 소속 예술가 겐몬 추미크는 전시관에서 미리 몸을 흙으로 덮은 뒤 특수 제작된 얇은 관을 통해 30분간 호흡했다. 이후 그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처럼 땅속에서 벌떡 일어났다. 주최 측은 "퍼포먼스를 통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건너온 사람들에게 고향의 땅이 주는 '푸근함'을 상기시켜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인터넷 약품 싸지만 꺼림칙

프랑스, 이달부터 처방전 없이도 구매 가능해져… 시민 81% "살 생각 없다"

프랑스에서 이달 1일부터 인터넷에서 처방전 없이 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프랑스인 10명 중 8명은 온라인 약품 구매를 주저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LH2가 실문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처방전 없이 약품을 구매할 준비가 됐나'라고 묻은 결과 81%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응답자 대다수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약품의 품질과 위조 여부를 우려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약품의 절반 가량을 위조 약품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2011년 자격이 있는 약사들에게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품만 온라인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온라인 판매 약품에 대한 불신은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은 프랑스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56%는 온라인 판매 약품의 '합리적인' 가격에 눈길이 간다고 말했다.

LH2 관계자는 "온라인 약품 구매는 번거롭게 의사의 진찰을 받지 않고도 간단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라며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도시의 젊은 고학력자들이 온라인 약품 구매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전역에는 2만2000여 개의 약국이 있다. 'e-약국'이 등장하자 많은 약사들은 "환자를 직접 마주하고 약을 처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며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온라인에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노조협회(FSPF)의 필립 게르트네르 회장은 "10분 거리마다 약국이 존재하다. 온라인 약품 판매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게르트네르 회장은 이어 "앞으로 환자들이 공식 허가를 받은 온라인 약국 사이트와 그렇지 않은 사이트를 구분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며 "환자들이 저질 약품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 약사협회 CNGPO의 파스칼 루아 회장은 "우리는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증상에 대해 조언도 함께 해준다. 인터넷에서는 이런 조언을 얻기 힘든 게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토마 봉파리옹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etro HongKong

"석류 먹고 싶어" 말기암 소년위해 천리길 사랑 배달

어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중국 시안에 사는 네티즌이 쿤밍까지 릴레이로 석류를 전달한 사연이 인터넷을 훈훈하게 달구고 있다. 21일 신랑(新浪) 웨이보에는 쿤밍에 사는 말기 제대 선암 환자 샤오보(4)의 이야기가 올라와 네티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최근 방광을 절제하는 수술을 마친 제 아들 샤오보는 석류 말고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쿤밍의 여러 시장을 돌아다니며 석류를 사려고 했지만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석류 대신 귤을 먹이면서 아이를 달래고 있어요."

22일 오전 8시5분 '충견(忠犬)'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시안의 네티즌은 글을 본 직후 "이 일을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댓글을 남겼다.

그는 석류로 이름난 린퉁구의 홍보부에 연락해 석류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홍보부는 '석류대왕'이라고 불리는 노인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그는 곧바로 냉동창고에서 가장 좋은 석류 12개를 골라 상자에 담았다. 오전 10시45분 홍보부 직원은 석류를 가지고 시안의 셴양(咸陽)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이어 오전 11시30분 동방항공 서북부지사는 '사랑의 길'을 열었다. MU5278편 항공기는 석류를 싣고 쿤밍으로 날아갔다. 오후 1시34분 비행기는 쿤밍 창수이(長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마침내 오후 3시 시안 네티즌의 온정을 담은 석류가 샤오보의 침대로 배달됐다.

석류가 샤오보에게 도착한 것을 보고 '충견'은 "더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 이웃들에 계속 사랑을 전해 샤오보가 건강을 회복하고 근심 없는 유년기를 보내길 바란다"고 글을 남겼다.

/정리=조선미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2억이면 아들 보장" 대리모 논란

그물에 유기견 '보쌈' 해도 너무해

“늙기 전 맨몸액션 하고팠죠”

영화 런닝맨 주연

신·하·균

만년 청춘일 것 같았던 신하균(39)도
어느새 고교생 자녀를 둔 철부지 아빠가 됐다
여성 팬들은 매우 슬프고 깜짝 놀라겠지만
다행히 영화 '런닝맨'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다음달 4일 개봉될 이 작품에서
살인 누명을 벗기 위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전직 도바리 차종우 역을 열연한 그는
"세월의 자연스러운 흐름 아니겠느냐
늙기의 주름이 자글자글하니 이젠 어쩔 수 없다"며
특유의 킬링 스마일을 터트렸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 하루 2~3시간씩 '공포의 셔틀런'

순전히 몸으로 때우는 액션물은 데뷔 15년 만에 '런닝맨'이 처음이다. 연기 첫 도전과 더불어 이 작품이 무척 의미있는 이유이자 출연을 마음먹은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다.

"더 나이 들기 전 몸이 허락할 때 한 번쯤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합을 짜지 않고 종로의 청계광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서울의 도심 곳곳을 누비며 무식하게 몸으로 부딪치는 액션이었기에 정말 힘들었어요."

지난해 여름의 살인적인 무더위는 촬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탈진을 우려한 무술팀은 신하균에게 촬영 전 유산소운동 위주의 훈련을 지시했고, 두 달 넘게 하루 2~3시간씩 '히딩크식' 셔틀런을 반복했다.

남들은 모르는 고소공포증도 그를 괴롭혔다. 와이어 하나에 의지해 건물과 건물 사이를 반복해 뛰어넘곤 했는데, 촬영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로 인해 늑골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연출자인 조동오 감독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것도,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것도 촬영이 끝나고야 알아놓더라. 표정이 워낙 태연하고 어유만만해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다"고 귀띔했다. 신하균은 "감독님이 액션에 재능이 있다고 현장에서 자꾸 추켜세웠다"며 "그러나 이젠 안 속는다. 칭찬에 넘어가면 비슷한 액션을 시나리오를 또 던져줄 것 같다"고 촬영 당시의 고충을 돌려 말했다.

 # 드라마서 이민정과 연기 부담? 천만에!

10대 때 '사랑의 불장난'으로 얻은 아들 기혁(이민호)과 티격태격하지만 점차 상대를 이해하고 아끼게 되는 과정을 연기하면서 자신의 청소년기도 되돌아봤다.

그 시절 신하균은 말없이 학교와 집만 오가던 고교생이었고, 회사 일로 바빴던 아버지와는 거의 대화가 없었다. "결혼을 하지 않아 아들과 호흡을 맞추는 장면에서 어떤 감정을 이끌어내야 할지 조금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어요. 서로에게 겉은 무뚝뚝하지만 속정은 깊은 한국의 전형적인 부자 관계라고나 할까요. 지금도 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시면 살짝 겁이 납니다. 하하하."

영화 개봉 뒤에 처음 방송될 SBS 새 드라마 '내 연애의 모든 것'에선 다른 당 국회의원과 비밀 연애에 빠지는 총각 의원을 연기한다. 상대역은 이병헌의 '그녀'인 이민정이 나선다.

13년 전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호흡을 맞췄던 선배의 여자친구가 살짝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낚시성(?)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다. 워낙 예쁘고 연기 잘하는 친구이므로 아주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병헌 형이 워낙 바빠 전화는 못 드리고 있다"고 곧이 곧대로 답했다.

우리 나이로 불혹에 접어들면서 주위의 결혼 독촉은 더욱 강해졌지만, 여전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농쳤다.

소개받는 것도, 먼저 다가가는 것도 모두 부담스러워 가만히 있다 보니 솔로 생활이 몸에 흠뻑 젖고 말았다고 하소연했다. "결혼도, 연기도, 아무것도 해 놓은 것 없이 그냥 마흔이 됐나 싶어 요즘 들어 어떤 때는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술도 빨리 취해 바깥보다는 자주만 집에서 조용히 마시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어쩌죠? 지금의 이 생활이 너무 편안하고 좋거든요. 저 아직 어른 아닌가 봐요."

사진/한제훈(라운드테이블) 디자인/원낙경

star bag

美 유명 코미디사이트 출연

에프엑스가 한국 연예인 최초로 미국 유명 코미디 사이트 '퍼니 오어 다이'에 출연했다. 이 사이트는 28일 오후 6시(한국시간) 에프엑스와 조지 클루니 주연의 '업 인 디 에어'와 '트와일라잇' 시리즈 조연으로 잘 알려진 개성파 여배우 안나 켄드릭이 함께 촬영한 코믹 드라마를 공개했다.

주말극 '돈의 화신' OST 참여

서인영이 SBS 주말극 '돈의 화신'의 OST '너는 사랑이다' 음원을 28일 공개했다. OST 제작사인 스타엔트라인먼트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이 노래는 작곡가 김범주와 작사가 강은경이 호흡을 맞춘 발라드"라며 "서인영 특유의 목소리로 호소력 있게 표현됐다"고 소개했다. 현재 서인영은 스타뷰티쇼 진행자와 화장품 개발자로도 활약 중이다.

'장곡의 법칙 in 히말라야' 합류

13일 군에서 제대한 배우 김혜성이 5월 중순 방송 예정인 SBS '정글의 법칙 in 히말라야'에 출연한다.

제작진은 28일 "김혜성이 언경란 오지은·정준 등과 함께 촬영을 위해 다음달 1일 네팔로 출국한다"고 전했다. 2005년 영화 '제니, 주노'로 데뷔한 김혜성은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높은 인기를 누렸으며, 2011년 입대 후 육군 군악대에서 정경호·민경훈 등과 복무했다.

다음달 4일 정규 3집 발표

케이윌이 다음달 4일 정규 3집 파트2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28일 전했다. 지난해 10월 파트1을 선보인 지 약 7개월 만으로, 소속사는 "김도훈과 이단옆차기, 프라이머리 등 실력파 프로듀서들이 대거 참여해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깊이 있는 음악을 선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케이윌은 음반 발표 당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컴백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 환상의 섬 네버랜드 완벽 구현 ● 객석 넘나드는 플라잉 액션

더 화려해진 '피터팬' 왔다

가족뮤지컬 '피터팬'이 한층 화려한 무대로 관객을 찾아간다.

가정의 달인 5월 4~5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펼쳐질 올해 무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플라잉 기술팀인 'ZFX'가 직접 내한해 플라잉 기술의 진수를 뽐낸다.

환상의 섬 네버랜드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물론 하늘에서 뿌려지는 요정 가루와 꼬마 영웅 피터팬이 실제 객석과 무대를 날아다니며 어린이 관객을 꿈의 세계로 안내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무대와 다이내믹한 율동, 노래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1979년 최유리를 시작으로 이정화·문희경, 이연경·박승가·남영주 등 당대 스타들이 피터팬을 거치며 사랑받아왔다.

제작사 쇼앤갤러리는 31일까지 조기 예매 관객에 한해 티켓 가격의 5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의 02)3141-3025 /김민준기자 mjkim@

창작뮤지컬 '빨래'를 5000원으로 즐겨요

국내 대표 창작뮤지컬 '빨래'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KB국민은행이 국내 공연 활성화와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든 'KB문화브런치'의 6번째 작품으로 '빨래'를 선택했다.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에서 공연되고 있는 '빨래'는 서울 달동네에 사는 강릉 아가씨 서나영과 몽골 출신 노동자 솔롱고를 주인공으로 소시민들의 정겨운 인생살이를 담고 있다.

2005년 초연 이후 2000회 넘게 공연하며 전국 33만 관객을 모았다. 지난해 일본 공연 투어를 진행해 일본 평론가와 신문기자가 선택한 베스트 뮤지컬 부문 6위에 오르기도 했다.

'KB문화브런치' 행사는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12시 공연으로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27일 각종 예매 사이트에서 티켓을 오픈했고 1인 2매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문의 1577-3363 /김민준기자 mjkim@

wind8686@naver.com

카리스마 넘치는 '브로드웨이 42번가' 포스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가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실제 브로드웨이 42번가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네온사인을 배경으로 뮤지컬 연출가 줄리언 마시 역을 맡은 박상원은 여유롭지만 인생을 관조하는 미소로 시선을 사로잡았고, 남경주는 흐트러짐 하나 없는 완벽한 스타일의 프로듀서로 변신했다. 과거 유명했던 뮤지컬 스타 도로시 브록 역의 박해미·홍지민·김영주는 아름다운 여배우의 자태를 뽐냈다.

이 작품은 뮤지컬의 본고장인 브로드웨이를 배경으로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한 소녀가 브로드웨이 최고의 스타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았다. 5월 11일~6월 30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다음달 7일까지 조기 예매자에게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 02)2211-3000 /김민준기자

CJ E&M
M net
출 수 있다면 도전하라!
댄싱9
총상금 5억(초호화 공연제작 3억+상금 2억)
레벨1 지원방법
지원마감 5월3일(금)까지
adidas

마지막 독립투쟁의 현장 서울 부민관

권기봉의 도시산책

서울시청 맞은편에 있는 한 현색 건물은 주변의 초현대식 건물들에 대비돼 더 이색적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부터 지난 1975년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다 지금은 서울시의회 로 쓰이고 있는 건물(사진)이다.

그런데 이 건물을 다시 보게 되는 이유는 건물 앞 화단 한쪽에 놓여있는 작은 표석 때문이다.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다.

"부민관 폭파 의거 터 – 1945년 7월 24일 애국청년 조문기, 류만수, 강윤국이 친일파 박춘금 일당의 친일 연설 도중 연단을 폭파했던 자리"

애당초 이 건물은 지난 1935년 일제가 지금의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과 같은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만든 것이었다.

같은 실제로는 각종 친일 정치 집회가 잇따랐다. 세 명의 청년들이 거사를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는 해방을 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었다. 일제 말기로 갈수록 지지부진해 보이기도 했던 독립운동이 해방의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됐음을 알 수 있는 현장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그 작은 표석 하나뿐이다. 지난 1980년 태평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건물 대부분이 헐렸고, 85년 들어 제3별관을 헌 뒤에는 지금처럼 공중목욕탕 굴뚝 같은 첨탑과 성냥갑 같은 어색한 건물만 남게 됐다.

세 명의 청년들도 하나둘 스러져 갔다. 가장 오랜 삶을 산 조문기 선생만 하더라도 평생을 일제잔재 청산운동에 주력하다 지난 2008년 향년 81세로 생을 마쳤다.

하루아침에 옛 서울시청사가 헐렸던 것처럼 이 건물이라고 수십 수백 년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서울시의회 근처를 지날 때 한 번이라도 더 시선이 머무는 이유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까지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8		
					4		7	6
1	8		2	5				
							9	2
7	2	1				3	8	4
6	9							
				2	9		4	3
3	1		7					
		7				5		

	2		7		5		4	
9								7
		8		1		2		
	9	7		3		6	8	
	1			8			2	
	8	4		2		5	9	
		6		9		4		
8								5
	4		8		6		3	

스도쿠 정답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 8877
www.saju4000.com

사주에 관운 있다고 하는데 교육·출판 분야 도전해볼 만

손작가 여자 85년 3월 25일 음력

Q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해고당했고요. 흔들려 사주를 보러 가면 '관직' 사주로 관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주에 관운이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년에 해외로 연수 다녀올 생각이고요. 원하는 직업은 작가 쪽과 교육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A 곤명(坤命)인 여자의 경우 관운, 관직을 말하는 관성(官星)은 배우자, 직장, 관직, 시험의 합격 여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관운이 있으려면 그것이 운에서 충극살(沖剋殺)을 맞지 않아야 하고 관고(官庫) 관이 들고여 갇힌 것)가 개고(開庫) 되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귀하의 생일지에 관고(官庫)의 백호는 심하면 파직이고 남자로 인한 고통을 안고 신등하게 몸을 앓시 옵니다. 음성이 맑자 울고 흥이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불행해지기 쉬우므로 타인을 위해 봉사심을 기를 필요가 있는데 이와 반대로 남들의 우러름을 사는 기이한 발복이 따르기도 합니다. 운이 현침살(懸針殺)이 있으니 교육 계통이나 출판 쪽으로 진로를 잡아 도전하십시오.

장년과 말년의 운 궁금해요 의류제조 기술 익히면 도움

한생이 남자 73년 8월 1일 음력

Q 1973년 음력 8월 1일생으로 지금은 결혼을 했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 장년운과 말년운이 궁금합니다. 한 줄게 나와도 상관없고요.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흰 토끼의 상으로 조실상이 지나치게 많아 스스로 출판하지가 쉬우니 심려이 담력하여 견루가 필요합니다. 2016년 재물을 많이 만져볼 수 있는 시기라 아직과 투자운이 발생하는데 출과가 좋지 않아 부부궁에 충살까지 가중돼 중년이 힘들게 되니 심사숙고하십시오. 이후 편재(偏財)기 강하여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여 자칫 처궁이 부실해지고 자신이 의처를 얻는 격이 돼 부부의 어일수가 따릅니다. 현침살(懸針)으로 가들로 직책, 의류제조법 기술도 인연이 있으니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지 말고 취미생활로 배워두십시오. 말년에 기관지질환을 주의해야 하며 심하면 간경화 증으로 고생할 수 있으니 운동으로 보완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면제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3월 29일(음 2월 18일) 박청화 철학원 051)853-8305

쥐 84년생 종통심의 문제, 귀를 씻서 문제를 해결해야. 72년생 자심이면 감천이니 정성을 기울여야. 60년생 기존의 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 듯. 48년생 순탄한 흐름 속에 탈출히 재물이 모이니.

소 85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 73년생 매사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61년생 화려한 외양만 좇다가 실속이 없을 수도. 49년생 금전운이 활하니 탈투를 볼 수도.

호랑이 86년생 완전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하지 말아야. 74년생 성급하면 물거품이 되니 서두르지 말기를. 62년생 미우리한 잘 골센다면 가다려보는 것도. 50년생 금전 거래에 주의를.

토끼 87년생 지나온 길을 후회하지 마라. 75년생 주위의 정보를 귀담아들어라. 63년생 나를 위로해줄 동조자나 후원자가 필요하니. 51년생 손재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할 것.

용 88년생 아름다운 언행으로 자기를 가꾸는 것이 필요. 76년생 웃을 수도 울고 울 수도 없는 상황. 64년생 여러움에 당당히 맞서는 늘기를 발휘하여. 52년생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을 수도.

뱀 89년생 지금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듯. 77년생 지금의 기회가 발전의 발판이 될 듯. 65년생 들어올 수 없는 가혹은 과감히 거절해야. 53년생 약간의 노력으로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 수도.

말 78년생 길고 짧은 것은 재어 보아야. 66년생 고집 때문에 오던 복도 달아나니. 54년생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포용력을. 42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를 보여야.

양 79년생 여럿이 힘을 합고 움직여야 같이 보일 듯. 67년생 지금 투자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55년생 기대하지 않은 일에서 좋은 결과가. 43년생 다툼수가 있으니 신중히.

원숭이 80년생 두 둘을 같이 볼아하고 해도 들 듯 말 듯. 68년생 자존심이 강해지니 굽힐 수가 없구나. 56년생 결과는 생각지 말고 묵묵히 일해봅이. 44년생 조금 더 분발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닭 81년생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할 것. 69년생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억지로 어울릴 필요는 없을 듯. 57년생 주변의 관심을 끄는 무기가 필요할 듯. 45년생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

개 82년생 자존심을 현재에서 찾지 말고 미래로 유보하라. 70년생 끝 실히 일한 만큼 대가 보상이 따르는 날. 58년생 동요되기 쉬우니 하던 일을 꾸준히 도모함이. 46년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따르니.

돼지 83년생 적당히 먹고 쉬지는 현명함이 필요할 듯. 71년생 사실을 알게 되면 허탈해할 수도. 59년생 과거에 매여 생각하는 것은 헛일. 47년생 애매모호한 행동은 오해를 낳으니 경계를 분명하게.

때론 달콤하게 -
때론 상쾌하게 -
때론 유쾌하게 -
t나게 tv보자!
눈으로 즐기는 T-time tcast
FX
SCREEN
FOX
DRAMA cube
FASHION
CINEf
FOXlife
channel
t.cast
최강 컨텐츠 리딩 그룹!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life
FX

JYJ가 1000여 팬의 환호를 받으며 27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JYJ 뜨자 日공항 마비…'왕의 귀환'

입국장에 팬 1000명 몰려 세이프라인까지 설치…내달 2일부터 콘서트

말 그대로 '왕의 귀환'이었다.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이 들썩였다!

다음달 2~4일 도쿄돔에서 단독 콘서트 '더 리턴 오브 더 JYJ'를 개최할 JYJ는 공연 준비를 위해 27일 일본으로 건너갔다. 출국장인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오전 이른 시각부터 500여 명의 팬들이 모였다.

입국장인 하네다공항에는 1000여 명의 팬들이 마중 나와 뜨겁게 환영했다. 팬들은 공항 측에서 마련한 세이프라인 안에 앉아 미리 준비해온 플래카드 등을 펼쳐 보이며 응원했다.

JYJ 소속사 관계자는 "JYJ가 오랜만에 일본에 방문한다는 소식에 너무 많은 팬들이 몰리자 공항 측에서 벤치 등 집기를 치우고 세이프라인을 만들었다. 무척 드문 경우로, JYJ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고 전했다.

JYJ가 현지 돔 무대에 오르는 건 2010년 도쿄돔과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연 '생스 기빙 라이브 인 돔' 공연 이후 3년 만이다. 일본 공연은 2011년 10월 이바라키현의 국영 히타치 해변 공원에서 8만 명의 관객을 모은 야외 공연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일본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으로 3년간 현지 활동에 제약이 잡혔던 이들은 지난해 말 승소와 함께 다시 활동의 기회가 열렸다. 일본 유명 연예기획사들은 초특급 대우를 약속하며 영입에 나서는 등 여전히 막강한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도쿄돔 공연 티켓 15만 장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다. 45만 명 이상이 이번 공연을 신청했고, JYJ 측은 마지막 날 공연을 일본 전역의 영화관 스크린에 생중계한다. 이번 공연은 총 21만 명이 관람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가성윤과 열애 한혜진 두가지 루머에 대한 입장

기성용이 지난해 8월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한혜진이 이상형이라고 말하자 한혜진이 악수로 화답하고 있다

①6월 결혼설 ②양다리설

상견례 NO 진지한 만남 / 상처될 일 한적 없어

배우 한혜진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기성용과의 열애 공개 이후 쏟아지는 루머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한혜진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모든 상황과 시기가 조심스러워 그러지 못했던 점 참 많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서게 된 건 저희 두 사람을 둘러싼 수많은 오해와 억측들을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다"고 밝혔다.

교제 사실이 알려진 후 '6월 결혼설'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것에 대해 "저희는 상견례를 한 적이 결코 없다. 서로 깊이 고민하고 결정한 만남이기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논의한 적도 없고 결혼을 말씀드리더라도 직접 하고 싶다"고 부인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결별 사실이 알려진 전 남자친구 나얼을 의식한 듯 "누구에게든 상처가 될 만한 선택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이별과 새로운 만남의 간극이 느껴지기에 짧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질타를 받아도 무방하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기성용의 축구화에 'H.J SY 24'라는 문구가 새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혜진과 교제설이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불거졌다.

한혜진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 미처 인정하지 못했던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기성용의) 출국 전 말씀드리라고 서로 마음먹었고 계획했다.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유순호기자

라니아, 브리트니 매니저와 손잡고 미국활동

걸그룹 라니아가 미국 유명 매니저의 러브콜을 받고 현지 활동에 돌입한다.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매니저로 유명한 래리 루돌프는 미국의 작곡팀 KNS가 라니아의 신곡 '저스트 고'를 작업한 사실에 관심을 가진 뒤 미국 방송 활동과 프로모션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소속사인 DR뮤직 관계자는 "파워풀한 안무와 노래 실력, 강렬한 무대 의상에 매료돼 각종 자료를 요청한 뒤 먼저 매니지먼트를 맡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루돌프는 스피어스는 물론 머라이어 캐리, 저스틴 팀버레이크, 백스트리트 보이즈, 제시카 심슨, 토니 브랙스턴 등 팝스타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해온 베테랑이다. 싸이가 저스틴 비버의 매니저인 스쿠터 브라운과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미국 활동에 속도를 냈던 것처럼 성공적인 미국 활동을 위해 유능한 매니저는 필수다.

라니아는 지난해 말 미국 유명 음반사인 엠파이어 레코드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진출을 선언했다. 루돌프와 함께 현재 스피어스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애덤 리베도 5월 중순부터 시작할 활동을 돕는다.

/유순호기자

2013 지역 일자리정책 한마당

2012년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발표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방안

대상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최우수상

Colorful DAEGU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북도〉

칠곡군 CHILGOK
〈경상북도 칠곡군〉

담양군
〈전라남도 담양군〉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우수상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Fantasia 판타지아 부천
〈경기도 부천시〉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Amenity Seocheon
〈충청남도 서천군〉

여주군
〈경기도 여주군〉

옥천군
〈충청북도 옥천군〉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GEOCHANG COUNTY 거창군
〈경상남도 거창군〉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CHANGNYEONG 창녕군
〈경상남도 창녕군〉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SUSEONG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광주광역시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Sun&Fun Haeunda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Digital GURO
〈서울특별시 구로구〉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의 창조 일자리, 대한민국의 희망 일자리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볼수록 몰입되는 신세계"

美 언론 호평 쏟아져

22일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에서 개봉된 '신세계'가 현지 언론의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각각 "동종 장르의 영화보다 피는 적고, 더 친밀하다. 이 종잡을 수 없는 조직의 이야기는 영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흥미진진해진다" "작가이자 감독인 박훈정은 인내심과 우아함, 만지 않은 유 블시티를 가지고 한국의 범죄조직 내 분열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칭찬했다.

인터넷 매체들의 분위기도 호의적이다. 이그재미너닷컴과 살롱닷컴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탄탄한 강렬한 범죄 스릴러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영화 중 어느 누구도 이런 범죄영화를 만든 적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영화감독조합 사단법인 출발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최근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정식으로 받은 한국영화감독조합은 다음달 1일 서울 대한극장에서 공식 창립총회를 연다. 정지영·박찬욱·김지운·봉준호·김용화·조성희 등 중견부터 신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감독 3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이 단체의 신임 대표는 이준익 감독이 맡는다.

조합 측은 "한국 영화 1억 명 시대에 걸맞게 말단 스태프까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의 모범적인 정착을 꾀하는 등 한국 영화산업의 비합리적 구조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B.A.P 데뷔 14개월만에 퍼시픽 투어

그룹 B.A.P가 데뷔 14개월 만에 퍼시픽 투어를 진행한다.

이들은 5월 7~17일 미국 4개 도시와 6월 말까지 일본·대만·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B.A.P 라이브 온 어스 퍼시픽 투어'를 개최한다.

미국 투어는 현지 통신사 버라이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다. 일본 공연 티켓 예매에는 정원의 세 배가 넘는 인원이 몰리는 등 해외 팬들에게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B.A.P는 데뷔 초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아이튠즈 힙합 앨범 차트, 독일 아시안 뮤직 차트 등 세계적인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최근 발표한 앨범 '원 샷'으로는 여러 차트에서 정상에 오르는 등 신인으로서 초고속 성장을 해왔다.

송승헌 신작 앞두고 다국적팬 쌀 5t 기부

송승헌의 새 드라마 출연을 기념해 다국적 팬들이 쌀을 기부했다.

한국은 물론 일본·대만·중국·불가리아·스페인 등에서 온 팬들은 27일 열린 MBC 수목극 '남자가 사랑할 때' 제작발표회에 40여 개가 넘는 쌀 화환을 보냈다. 총 5110kg에 달하는 쌀로 행사 관계자는 쌀이 행사장을 가득 채우는 바람에 드라마 포스터를 붙일 곳을 찾지 못해 난감해하기도 했다. 소속사는 쌀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기로 했다.

팬들은 "새 드라마 대박! 시청률도 대박!" "송승헌 파이팅!" 등의 한글과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응원 메시지를 달았다. 송승헌은 자신의 트위터에 "남자가 쌀 받을 때 ㅎㅎ 여러분들의 응원 너무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화답했다.

다음달 3일 첫 방송되는 '남자가 사랑할 때'에서 송승헌은 주인공 한태상 역을 맡아 신세경과 호흡을 맞춘다. /유순호기자

<SF 4각 로맨스>

'호스트', 너를 기다렸다

'제2의 트와일라잇' 시리즈 높은 기대… 다음달 4일 개봉

SF 로맨스 '호스트'가 '제2의 트와일라잇' 시리즈로 관객들의 높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작품은 우선 원작자가 여류 작가 스테파니 메이어로 같다. 메이어는 '트와일라잇' 시리즈의 후속작으로 '호스트'를 선보여 유에스에이(USA)투데이와 아마존닷컴 등 미국 내 각종 베스트셀러 순위를 장기간 휩쓸면서 전작 이상의 대성공을 거뒀다.

원작의 매력에 푹 빠진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영화화에 앞다퉈 달려들었으나 '트와일라잇' 시리즈보다 한층 섬세해지고 복잡해진 이야기 구조에 어려움을 느껴 대부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루먼쇼'의 시나리오 작가 출신으로 '시몬' '인 타임' 등을 연출한 제간 감독이 이야기꾼 감독 앤드류 니콜과 '잡스'의 투자·배급사인 오픈로드가 손잡고 영화로 옮기는 데 마침내 성공했다.

얽히고 설킨 등장인물 구성도 '트와일라잇'과 비슷하다. 인간 멜라니와 외계 생명체 완더의 영혼이 공존하는 한 여인(시얼샤 로넌)을 중심으로 차갑고 거친 성격의 제러드(맥스 에이언스)와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성격의 이언(제이크 에이블)이 펼치는 4각 러브라인은 '트와일라잇' 속 인간 소녀와 뱀파이어, 늑대인간의 삼각관계를 연상시킨다.

다음달 4일 개봉을 앞둔 국내 수입사 측은 "'트와일라잇'에 비해 한층 진화한 현대의 로맨스로, 예측할 수 없는 사랑의 결말이 많은 눈길을 자아낼 것"이라고 장담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이하이 '로즈' 음원 올킬

사랑의 아름다움과 아픔 노래

이하이가 신곡 '로즈'로 음원차트 1위를 석권했다.

28일 발표한 첫 정규앨범 '퍼스트 러브'의 타이틀곡 '로즈'는 멜론·벅스뮤직·소리바다·엠넷·네이버 뮤직·다음뮤직 등 각종 음원 사이트 실시간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

'로즈'는 YG의 간판 프로듀서인 테디와 원타임 송백경이 공동작곡하고 테디가 작사·편곡한 R&B 하우스 장르의 곡이다. 장미에 가시가 있듯이 사랑도 아름다움과 아픔을 함께 지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하이는 맑은 음색과 특유의 중저음을 적절히 조화해 한 곡 안에서 다양한 느낌을 표현했다.

레트로 소울 장르의 데뷔곡 '1,2,3,4'로 차별화된 음악을 선보였던 이하이는 'YG 스타일'이라 불리는 '로즈'로 변화를 시도했다. /유순호기자 sune@

하이트진로 '사회공헌 경영' 선포

하이트진로가 올해를 '사회공헌 경영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내 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기부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김인규(사진) 사장은 28일 가진 간담회에서 "5년 안에 사회공헌 기부액 비중을 전체 영업이익의 5%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이트진로의 기부액은 영업이익의 2.8%인 39억원으로 향후 50억~6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7개 수입주류 업체가 지난 5년간 집행한 사회공헌 기부 규모가 8억원 수준이고, 주요 기업들이 영업이익의 2% 가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우선 하이트진로는 5월 1일 맥주 브랜드 '하이트' 의 20주년, 8월 9일 국내 최초 맥주공장 설립 80주년을 맞이 두 기념일 사이 100일간 3100여 명의 모든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회공헌 캠페인을 벌인다.

/전효순기자

본토 셰프가 전하는 이탈리아의 맛

롯데호텔 페닌슐라 '세바스티안 특선메뉴' 선봬

롯데호텔서울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페닌슐라가 최근 북이탈리아 출신 세바스티아노(사진) 셰프를 영입해 미식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년 경력의 베테랑 셰프인 세바스티아노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 페르골라(La Pergola)에서 활약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청담동과 이태원 등지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총주방장을 역임해왔다.

페닌슐라는 4월 한 달간 새로운 셰프의 솜씨를 느낄 수 있는 '세바스티아노 특선메뉴'를 선보인다.

점심은 토마토와 오리 간을 곁들인 돼지볼살 또는 송아지정강이찜을 메인으로 한 코스 메뉴(8만~10만5000원), 저녁은 저온 조리한 삼겹살 또는 한우 안심스테이크가 메인인 코스 메뉴(12만5000~15만5000원)를 준비했다.

이와 함께 테라스에서 즐기는 이탈리아식 식전 문화를 가리키는 '아페리티보 인 테라초' 콘셉트의 세미뷔페를 새롭게 오픈한다.

세바스티아노 셰프가 정성껏 준비한 연어샐러드와 소고기카르파치오 카프레제샐러드 등 다양한 안티파스티(애피타이저) 6종과 인살라타(샐러드) 4종, 달콤한 디저트 8종을 마련했다. 가격은 점심 저녁 모두 4만5000원.

뷔페를 즐기는 고객에 한해 메인 요리와 와인도 별도 주문이 가능하다. 피자나 파스타류는 1만원, 생선 또는 해산물류 2만원, 고기류는 2만5000원이고, 저녁에는 소믈리에가 엄선한 10여 종의 이탈리아 와인을 3만5000원부터 즐길 수 있다. 모든 가격은 세금 및 봉사료 포함. 문의 02)317-7121

/박지원기자

'커피 신세계' 스페셜티 커피 맛보세요

하이엔드커피시장 이끄는 GBT커피 대표 유철문 박사

"체인커피점들의 개성없는 맛과는 비교 안돼"
메트로신문 사옥내 '카페아토'서 강연 계획

커피업계에 불어치는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반 원두커피로는 성에 차지 않는 마니아들이 고급 커피를 찾으면서 커피 전문점들까지 스페셜티 커피 전문 매장을 열 정도다. 국내 스페셜티 커피의 선구자로 통하는 GBT커피 대표이자 영상의학과 전문의 유철문 박사는 이런 흐름이 반갑고 흐뭇하다.

"원두커피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는 커피를 즐기려는 마니아들이 등장한 거죠."

최근 서울 광장동에 자리 잡은 GBT커피를 찾으니 로스팅 기계와 각종 원두들이 빼곡하게 눈에 들어온다. 유 박사가 건네준 커피는 도미니카의 산토도밍고로, 비닐라와 초콜릿 같은 달콤한 향이 밀려오며 혀에 착 감긴다. 단 맛에 나는 커피전문점 커피에 길들여졌다면 싱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 정도의 보디감과 균형 잡힌 부드러운 맛으로 유명한 이유를 금세 알 정도로 입안을 꽉 채웠다.

사실 산토도밍고는 그를 커피의 세계로 이끈 큰 의미가 있는 커피다. 업무차 도미니카에 머물던 2001년 3월 그는 처음 간 커피농장에서 맛본 커피 맛을 지금도 최고로 꼽는다.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 속에서 '커피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 하고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껏 커피를 사랑하고 있나 봐요."

그는 한국에 돌아온 후 커피 맛이 너무나 그리워 2004년 GBT커피를 만들어 도미니카의 생두를 들여왔다. 이후 국내 커피업계에 스페셜티커피를 알리는 일을 맡아왔다. 2006년 국내 최초로 COE(Cup Of Excellence) 인터넷 경매에 참여해 생두를 구매했고 2008년부터는 게이샤 커피를 알리기 시작했다. 게이샤 커피 경매에도 참여해 2008년 5월 국내 처음으로 300파운드의 생두를 낙찰받았다. 2011년부터는 미국의 스페셜티 커피업계 나인티플러스사의 파트너가 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최고급 커피를 공급하고 있다.

유철문 박사가 GBT커피 로스팅 작업실에서 도미니카 산토도밍고를 맛보고 있다. 그는 "흔히 커피맛도 스쳐 지나가니 집중해서 맛을 느껴보라"고 조언했다. /손진영기자 son@

"스페셜티 커피는 와인처럼 테루아를 나타낼 수 있는 커피예요. 일반 커피전문점에서처럼 원두를 섞어 마시면 복잡미묘한 맛이 없어 두리뭉술해져요."

유 박사는 올봄 메트로신문을 통해 커피전문점이 지배한 요즘 업계의 흐름, 그리고 맛있는 커피를 즐기는 노하우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 메트로신문 사옥 내 '카페 아토'에서 커피 마니아들을 직접 만나 스페셜티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연도 계획 중이다.

"커피맛은 '왔다가 간다(Comes and go)'고 표현할 만큼 순간적일 수 있으니 어렵다고만 생각 말고 즐겨보세요. 커피는 불황 속에서도 누구나 입맛대로 최고를 즐길 수 있는 '열린 명품(Affordable Luxury)'이니까요."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토다이-대한양계협회 MOU '청정드림' 브랜드 론칭

한양계협회-(주)토다이코리아 업무협약

뷔페 레스토랑 토다이코리아가 최근 대한양계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청정드림'이란 통합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에 따라 토다이는 국내 축산농가가 생산한 양계 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는 축산농가의 수익 증대는 물론 거품을 뺀 가격에 고품질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상품은 지역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30일 '2013 경남민속문화의 해' 선포식

국립민속박물관과 경상남도는 30~31일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2013 경남민속문화의 해' 선포식 및 민속축제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소멸 위기에 있는 민속문화 유산의 발굴과 보존,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민속문화 유산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선포식 당일인 30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인 고성농요·진주삼천포농악·밀양아리랑 공연 등 경남을 대표하는 민속 공연을 선보인다. 행사에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 등을 비롯해 경남 도민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31일에는 전시·체험·공연 등 민속축제 한마당으로 꾸며진다. 남해 남지 같은 시인과 다양한 '오광대탈'(고성·통영·가산) 등이 전시되고 민속 공예품 만들기와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박지원기자

추신수 솔로포! 시범경기 2호

부상 복귀 4경기 만에 '손맛' 건재 과시

추추 트레인 추신수(31·신시내티)가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두 번째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추신수는 28일 미국 애리조나주 굿이어의 굿이어 볼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시범경기에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해 0-1로 뒤진 5회 열 세 번째 타석에서 동점포를 터뜨렸다.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선 추신수는 볼 2개를 골라낸 뒤 상대 선발 에딘슨 볼케스의 3구째를 받아쳐 왼쪽 펜스를 훌쩍 넘기는 아치를 그렸다. 13일 LA 에인절스전에서 시범경기 첫 홈런을 뽑아낸 지 15일 만이다. 특히 허리 통증으로 8일간 결장하다가 돌아온 지 4경기 만에 홈런을 터뜨리면서 건재한 몸 상태를 증명해 보였다.

추신수는 앞선 두 타석에서 연속 땅볼로 물러났고 1-1로 맞선 7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또 안타를 뽑아내 팀의 역전승에 디딤돌을 놓았다. 조이 보토의 2루타 때 3루에 진출한 뒤 라이언 루드윅의 홈런으로 역전 득점을 올렸다. 8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1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이날 5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을 기록한 추신수는 시범경기 타율을 0.342(38타수 13안타)로 끌어올려 정규리그를 향한 예열을 마쳤다. 신시내티는 7-3으로 이겼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프로야구 평균연봉 1억4535만원

개막전 엔트리 분석 … 1억9천 삼성 1위

프로야구 2013 시즌 개막전에 출전할 9개 구단 엔트리 234명의 평균 연봉이 1억45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6일 발표한 개막전 엔트리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9구단 NC 다이노스를 포함한 선수 연봉 총액은 340억1150만원으로 지난해(284억5800만원)보다 55억5000만여 원이 늘었다. 선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3748만원에서 1억4535만원으로 780만여 원 증가했다.

NC(27명)와 LG(25명)를 뺀 7개 구단이 26명씩 개막전 참가 선수 명단을 제출한 가운데 디펜딩 챔피언 삼성이 연봉 총액(49억500만원)과 평균 연봉(1억8865만원)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신인 선수가 많은 최하위 NC와 연봉 총액 21억9900만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연봉 총액은 삼성에 이어 KIA(42억8000만원), SK(41억7700만원), 롯데(41억원) 순이었다.

올해 프로야구 개막전은 30일 오후 2시 대구(삼성-두산), 문학(SK-LG), 사직(롯데-한화), 광주(KIA-넥센) 구장에서 열린다.

/김민준기자

구자철 옆구리 근육 파열 2~3주 결장

"카타르전때 부상…독일 가서 치료 전념"

구자철이 28일 인천공항에서 옆구리 통증을 참고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철(24·아우크스부르크)이 카타르와의 월드컵 최종예선 경기 중 옆구리 부상을 당해 2~3주 결장이 불가피해졌다.

구자철은 28일 오후 독일로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전반 10분 상대 선수와 부딪쳐 옆구리 부근을 다쳤다"며 "당시에는 아픔을 참고 뛰었지만 경기를 마치고 나니 통증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구자철의 측근은 "하루 전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옆구리 안쪽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2~3주 정도 결장해야 한다"고 상태를 전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분데스리가 2012-2013 시즌 8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5승9무12패(승점 24)로 강등권인 16위를 달리고 있다. 미드필더의 핵 구자철의 부상은 아우크스부르크로서는 날벼락이다.

구자철은 "전날 단장, 감독님과 통화했는데 팀으로 돌아와서 치료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고 하기에 그러겠다고 했다"며 "한국에서 일주일쯤 보내려다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비행기 표를 바꿨다"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양궁 단체전도 세트제 도입

세계양궁연맹 "혼성종목 추가 IOC에 건의" … 휠라와 후원 협약

윤윤수(왼쪽) 휠라코리아 회장과 톰 딜런 세계양궁연맹 사무총장이 28일 후원 협약서에 사인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개인전에 이어 양궁 단체전에도 세트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톰 딜런 세계양궁연맹(WA) 사무총장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스포츠 브랜드 휠라와의 후원 협약식에서 "7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단체전 세트제 도입이 논의된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남녀 혼성 종목 추가도 건의할 계획이다.

세트제는 세트의 승·무·패에 지정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치명적인 실수로 한 세트를 지더라도 역전이 가능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이 유지된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수녕 대한양궁협회 이사는 "단체전 세트제 도입은 거의 확정적"이라며 "7월 총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국제대회에 적용된다. 한국에 불리한 방식일 수도 있지만 기량이 뛰어난 후배 선수들이 많이 이를 충분히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휠라는 이번 협약에 따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까지 4년 동안 WA가 주관하는 월드컵, 그랑프리 등을 후원한다.

/김민준기자

삼성화재 6연패

男배구 대한항공에 3연승

삼성화재가 남자팀으로서 첫 프로리그 6연패를 달성했다.

삼성화재는 28일 인천 도원시립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대한항공을 꺾고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는 2007~2008시즌부터 6연승을 차지하며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의 6시즌 연속 우승팀의 기록을 세웠다.

한국 프로스포츠에서 사상 처음 6시즌 연속 우승을 이룬 팀은 여자농구 안산 신한은행이다.

당시 신한은행은 2007년 겨울리그부터 2011~2012시즌까지 6시즌 연속 정규리그와 통합연결정전에서 정상에 오르며 통합 챔피언이 됐다.

/정을희기자 unique@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4 How old are you? 나이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브코너입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Wow, you look great in that red shirt! You look so young.
B Really? Thanks. By the way, 제가 몇 살인지 맞힐 수 있겠어요?
A Let's see. 제가 보기엔 당신은 대략 26살쯤 된 것 같은데요.
B Well, I just turned 30 last week.
A Really? 제가 당신보다 두 살 더 많군요.

해답 can you guess how old I am? / I'd say you're about 26 years old. / I am 2 years older than you are.

생생영어팁

▶ young at heart
마음은 젊은

유명한 노래 제목이도 나오고 영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마음은 여전히 젊은'의 뜻입니다. 보통 이 표현 앞에 I'm 또는 You are라는 주어와 동사가 오죠. 비슷한 의미로 Age is only a number라고도 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즉 나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젊고 늙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요즘의 세태를 잘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한편으로 이와 정반대의 뜻을 갖는 말도 있는데요, 바로 '나이 든 개에게 새로운 묘기를 가르칠 수 없다'는 뜻의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가 있습니다. 속담의 일종으로 나이 든 사람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습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데,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외국에서는 70, 80대 어르신들께서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 1000

01 The new restaurant on Park Avenue has _______ much excitement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reputation of its executive chef.
(A) marketed (B) equipped
(C) generated (D) received

02 The Produce Growers Association has distributed a pamphlet to area supermarkets that lists fruits and vegetables with the highest _______ of vitamins.
(A) attractions (B) concentrations
(C) beneficiaries (D) commands

01. 파크가에 새로 문을 연 식당은 수석 요리사의 세계적인 명성으로 인해 많은 열광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해설 문맥상 '열광을 불러일으켰다'가 적절하므로 (C) generated를 써야 한다.
어휘 excitement 명 흥분, 신남, 열광 reputation 명 명성 executive chef 수석 요리사 market 동 상품을 시장에 내놓다 equip 동 장비하다, 자질을 갖추다 generate 동 발생시키다, 불러일으키다
정답 (C) generated

02. 농산물 재배자 협회는 비타민이 가장 많이 든 과일과 채소 목록이 있는 팸플릿을 지역 슈퍼마켓들에 배포하였다.
해설 '비타민이 최고로 농축된'이 적절하므로 (B) concentrations를 쓴다.
어휘 produce 명 농작물 grower 명 재배자 association 명 협회 distribute 동 배포하다, 배분하다 [illegible] attraction 명 매력 beneficiary 명 수혜자, 수익자 command 명 명령, 지휘
정답 (B) concentrations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Part 2. Describe a picture

사진의 구도 표현하기

• 원근 및 좌우의 구체적인 위치 표현하기

① On the upper lef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boat approaching the harbor.
[illegible]
② I can see many docked boats on the upper right side of the picture.
[illegible]
③ I can see an orange building on the lower left side of the picture.
[illegible]
④ There are some cars in the street on the lower right side of the picture.
[illegible]

Tip: 위치를 좀더 자세히 말하고 싶을 때는?
이런 경우 far 또는 very와 같은 부사를 사용하여 '더 ~', '그보다 더 ~'라고 표현할 수 있다.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가 사진의 배경에서라면, in the far background of the picture 혹은 in the very background of the picture는 '그보다 더 먼 곳에'라는 뜻이 된다.